

## 직업교육훈련 100년을 회고하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올해는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00년간의 직업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념식을 한국직업교육학회를 비롯한 직업교육 관련학회 및 교장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대 직업교육훈련은 1899년 상공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태동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은 국민 각자에게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이 개인의 직업준비와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국내외적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직업교육 발전 과정을 간단하

게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50년대에는 국가재건을 뒷받침하는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실업계 고교를 증설하였으며,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맥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실업계 고교, 직업훈련원 중심의 직업기술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70년대에는 공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인 중화학분야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얻기 위하여 실업계고교, 직업훈련원의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전문대학 교육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80년대부터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요 증대 등으로 실업계고교 및 직업훈련 교육이 정체되고,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등이 발전하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유전공학, 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발전을 위해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및 공과대학의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등 고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



이 무 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인 직업 교육 체제는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 및 소질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보다는 전통적인 인문 숭상의 국민 정서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산업체의 인력 양성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인력관리 및 고용 제도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도 커다란 기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지식 기반사회로 특징지어 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지식이 개인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전망입니다. 선진국들도 직업교육개혁을 중심으로 국가의 교육훈련 체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체제로는 새로운 직업창출이 어렵고,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없다는 국가적 위기감에 동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일과 학습의 연계를 통한 질 높은 교육훈련의 강화를 골자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지식기반 국가 형성을 국정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지식기반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부도 '99년 3월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도 훈련직종을 지식기반 직종중심으로 개편하고 맞춤 훈련 실시 및 자격 검정제도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네스코가 구상하고 있는 UNE-VOC 센터(독일 본)의 건립과 이와 연계하여 APEC의 '지역센터'를 한국에 유치하여 지구촌화와 국제화에 대비하는 직업교육훈련도 활성화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국민의 평생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훈련제도 등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개편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모두가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변화에 따라 전직도 용이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훈련을 위한 제반 환경을 혁신하고, 연구 인프라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만이 모든 국민의 직업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